

반고흐·와인·시노래...다채롭게 듣는 클래식

광주문예회관 '11시 클래식 산책' 가보니
김이곤 기획·해설...매월 두번째 화요일
“엄숙함 깨고 관객에 감동 전하고 싶어”
영상 틀며 연주...커피 등 무료 제공
10일 '8인 화가·음악가' 창조콘서트

“세계 미들급 권투 챔피언 마르셀 셰르랑을 사랑했던 에디트 피아프는 그에게 뉴욕으로 빨리 와달라고 합니다. 당초 예약했던 비행기편을 취소하고 급히 미국으로 향하던 그는 비행기 사고로 죽고 말죠. 유명한 ‘사랑의 찬가’는 바로 그를 그리며 부른 노래입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는 인생의 절곡을 거쳐온 에디트 피아프의 유언같은 노래죠. 또 다른 상송 ‘장밋빛 인생’에서 그녀는 죽음보다 외로움이 두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말해요. 항상 사랑하라고.”

그의 설명이 끝난 후 연주가 이어졌다. 프랑스에서 공부한 소프라노 김지영과 트리오 마리가 들려주는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들이다. 마리아 꼬피야르가 주연을 맡은 ‘라 비엥 로즈’를 비롯해 파리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배경으로 흐른다.

지난달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김이곤의 11시 클래식 산책’ 첫번째 공연은 관객들에게 행복한 경험을 선사했다. ‘봄에 듣는 상송’을 주제로 열린 이날 공연에서는 에디트 피아프의 곡 이외에도 ‘셀부르의 우산’, ‘오 상젤리제’ 등 친숙한 상송들이 연주됐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은 대극장 로비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무료로 커피와 머핀을 즐겼다.

광주문예회관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김이곤의 11시 클래식 산책’은 매달 두번째 주 화요일, 다양한 주제로 모두 8차례 진행된다. 공연 후 음악회를 기획하고 해설을 맡은 김이곤씨를 만났다.

“지금까지 많은 음악회를 열었지만 오늘은 조금 긴장이 됐네요(웃음). 광주에서 첫 만남인데다 모두 8차례 음악회를 진행해야하는 터라 오늘 관객들이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하니까요. 오늘 공연이 일종의 ‘첫인상’이잖아요. 좋은 만남으로 이어져 앞으로 많이들 보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음대 성악과 출신으로 극동아트 TV 총괄 음악 감독, KBS 열린음악회 클래식 자문 등을 맡았던 그는 몇 년전 부터는 다양한 주제로 음악회를 열고 있다. 2000년 즈음 갤러리에서 열린 친구의 전시 개막식 때 음악회를 연 게 시작이었다. 그는 매년 100회 이상 음악회 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의 요청도 이어져 지난해에는 140여회 강



지난 3월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김이곤의 11시 클래식 산책' 공연 모습.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11월까지 모두 8차례(매월 둘째주 화요일) 열린다.



기획 겸 해설자 김이곤씨

연을 진행했다. 올 한 해 광주문예회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독특한 테마가 인상적이다.

“단순히 음악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 시각을 투영해 음악회를 만들고 해석합니다. 음악을 잘 알고 모르는 별 문제가 되지 않죠. 전 호기심이 많아요. 여행, 책, 그림 등 모든 것에서 받아들인 다양한 내용들을 음악회라는 통로를 통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싶습니다. 반 고흐의 삶을 보면 ‘그림으로 밖에 말할 수 없는 남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저는 세상을 음악회로 밖에 말할 수 없는 남자라고 할 수 있지요(웃음).”

그가 기획한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 있는 건 2013년 시작된 ‘반고흐 콘서트’로 지금까지 500회 정도 진행됐다. 반고흐의 회화 작품 120여편과 소풍의 피아노 음악 등이 어우러진 콘서트로 광주에서는 11월 13일 관객들을 만난다.

“반 고흐 콘서트는 기업체 등에서도 참 많이 했던 아이템입니다. ‘시 음악으로 만나다’의 경우 시는 음악이, 음악은 시가 되고 싶어한다는 생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

다. 사계절의 흐름을 가곡과 가요에 사용된 시와 함께 음미하는 시간이지요.”

그는 클래식이 어렵다는 편견을 깨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자세한 설명과 함께 프로젝션을 통해 다양한 이미지와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그 때문이다.

“1800년대까지만 해도 공연장에서 도시락도 먹고 떠들고 그랬다고 해요. ‘제대로 갖춰서’ 클래식을 듣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전 클래식의 엄숙주의를 깨고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요. 연주자가 공연을 기획할 때는 아무래도 공급자 입장에서 레퍼토리를 정하기 쉬워요. 전 철저히 관객, 수요자 입장에서 기획을 하니 조금 더 편안하게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오는 10일 열리는 ‘8음8색 창조콘서트’는 로트베, 클리프, 르누아르, 피카소 등 8명의 화가와 베토벤, 비제, 포레, 비틀즈, 엔리코 모리코네, 피아졸라 등 8명의 음악가를 만나 ‘창조성의 개념’을 찾는 프로그램이다. 비올라(김성운), 첼로(조명환), 피아노(방기수) 연주로 포레의 ‘꿈을 꾸 후에’, 베토벤 ‘비창’ 3악장, 에릭 클랩튼의 ‘Trsea in Heaven’ 등을 들려준다.

상반기에는 피아노 트리오로 ‘얼굴’, ‘가을편지’, ‘내 영혼 바람되어’ 등을 만날 수 있는 ‘시 음악으로 말한다’(5월 15일), ‘클래식 기타로 듣는 동요’(6월 12일), ‘수만과 클라라, 브람스의 완전한 사랑’(7월 17일) 등이 공연된다. 하반기에는 ‘가을의 와인 콘서트’(9월 11일), ‘4인조 남성 팡페라-로맨스그레이 금지곡 콘서트’(11월 13일)가 예정돼 있다. 전석 1만원(커피와 머핀 제공). 문의 062-613-823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월 정신과 함께하는 ‘제주 4·3’

70주년 추모문화제
4일 5·18민주광장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광주에서도 추모문화제가 펼쳐진다.

이번 추모문화제는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와 광주지역위원회, 5월음악위원회, (사)내뽕소리민족예술단, 작가회의 주관으로 오는 4일 오후 5시 5·18민주광장에서 열린다.

문화제 주제는 ‘지슬과 주먹밥’, 갑자의 제주 사투리이자 4·3을 상징하는 ‘지슬’과 5·18대통령신의 상징인 주먹밥을 내세워 함께 의미를 되새기고 계승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광주에서 개최되는 이번 추모문화제는 시낭송, 노래, 살풀이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다. 작가회의 회원들의 시낭송과 5월음악위원회의 ‘아서 열자 통일의 문’, ‘어머니의 손’, ‘4월에 부는 바람’이 펼쳐진다. 강해림 무용가는 내뽕소리민족예술단의 반주에 맞춰 살풀이 춤으로 분위기를 돋운다.

한편 2일부터 5일까지(오후 1시~밤 9시)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지역 국민분양소가 운영된다. 또한 오는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전국 규모의 4·3제70주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평화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010-3353-2844.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설장구 가락에 봄을 신고

5일 ‘연희단 소리마디’

‘연희단 소리마디’가 제565회 목요일연국악한마당 공연으로 ‘가락무(歌樂舞)’를 선보인다. 5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이번 공연은 지역의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또 공연을 통해 관중과 대중들이 함께 즐기는 신명나는 판을 선보일 예정이다.

연희단 소리마디는 전통문화의 울림을 계승과 전통문화를 통한 대중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창단해 현재 20여 명의 회원들이 전수 교육 활동 등 각종 문화예술 교육·전수·공연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다.

이번 공연은 김민관, 송양호, 정춘심, 서선주, 김명희가 한국무용(한량무)을 선보인다. 이어 오강식이 태평소 무대를, 공석례, 이화영, 김명희, 전



‘연희단 소리마디’ 공연 모습.

순정이 앞은반 설장구를 준비했다. 김산, 송양호, 송선숙, 김용식, 공석례 등이 웃다리 사물놀이를, 안수현이 단가(사설가)와 민요(사랑가)를 무대에 올린다. 마지막 무대는 진도복(춤)놀이로 마무리한다.

무료관람. 문의 062-350-4557.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기획 책임큐레이터 공모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11월 개최될 2018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을 총괄 기획할 책임큐레이터를 공개 모집한다.

올해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북관2관)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전시, 공연, 교육프로그램 등 프로젝트를 통해 미디어아트와 친숙해 질 수 있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꾸며진다. 행사기간도 지난해 3일에서 10일로 대폭 늘어난다.

2018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책임큐레이터는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행사·공연 등) 전문 인력 운영 등 행사

전반을 총괄 운영하게 된다. 미디어아트 전시 및 축제의 기획·실행 유경험자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 및 인터뷰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이며, 응시 서류를 광주문화재단(www.gjcf.or.kr) 및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서 내려 받아 재단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인터뷰 심사일은 18일,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19일 예정이다. 문의 062-670-7492.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전당 해외인턴 모집

대학생·전문문화기획자 등

4일 ACC서 사업 설명회

공모지원 절차를 거쳐 선정된 개인(팀)은 일정 기간 동안 해외문화예술기관에서 인턴십, 방문기관 조사연구, 프로젝트 참여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관련 분야 경력이 많은 전

문가 중심의 기존 국제교류 지원사업과 달리 대학생과 청년문화기획자와 같은 예비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의 폭이 넓다는 점이다. 또한 해외 실무과정에 대한 적응과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교육도 제공한다. 그밖에 공모사업 참여자가 스스로 방문기관을 선정하는 자유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사업 설명회는 오는 4일 ACC와 6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서울)에서 각각 진행된다. ACC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사전 예약하면 참가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영국 런던 빅토리아앨버트뮤지엄, 일본 야마구치 야마구치미술정보센터, 호주 시드니 시드니오페라하우스 등에서 대학생과 청년기획자들이 인턴으로 활동하며 세계 예술 현장을 경험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국제적인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2018 ACC 전문인력 해외인턴십’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ACC가 운영하는 2016~2018 전문인력 아카데미 참가자를 비롯해 ▲문화예술분야 전문 기획자 ▲광주 및 전라도 지역 대학생과 청년문화기획자 같은 예비전문가 등 대상별로 구성돼 있다.